原始 韓半島語*

——日本語와 관련해서——

金　芳　漢

一. 序
二. 古代 韓半島의 言語
三. 古地 名을 통해서 본 言語差
四. 原始韓半島語
五. 百濟語의 두 낱말

一. 序

1.1. 日本語의 周圍를 볼 때, 類型的으로 현저한 유사성이 있고 또 유사한 낱말이 發見되는 점에서 먼저 注目되는 言語가 한국語와 알타이諸語이다. 특히 한국語는 日本語와 近接해 있는 言語이다. 따라서 日本語는 먼저 한국語와 親近關係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일찍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은 當然하다. 그리하여 이 兩言語의 親近關係를 證明하기 위한 여러 比較研究가 계속되어 왔다. 한국語와 日本語의 比較研究는 決코 짧다고는 할 수 없는 歷史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研究는 日本學者에 의해서 시작되어, 한동안 中斷狀態에 있었으나, 近來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1). 우리 學者가 이 分野의 研究에 크게 參與하지 못했던 것은, 當時로선 그럴만한 理由도 있으나 그런 狀態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1897年에 白鳥庫吉은 「日本語の古語と朝鮮語との比較」에서 200余개의 유사한 낱말을 그나름대로 지적한 바 있다(2). 그뒤 金澤庄三郎은 1910年 「日鮮兩國語同系論」에서 150개의 유사한 낱말을 들고 文法形態素에까지도 言及

---

* 本稿는 東亞文化(第17輯 1980)에 發表한 拙稿, 「韓國語 系統研究 序說」과 部分的으로 重複되는 部分이 있으나(3・4章), 그 內容은 크고 작게 補正된 것이다. 上揭論文은 1979年 10月에 脫稿하여 東亞文化研究所에 提出했으나, 近一年이 지난 뒤에야 論文集이 發刊되었다.

(1) 한・日 兩言語의 比較研究史에 관해서는, 大江孝男, 朝鮮語と日本語(岩波講座 日本語 (12), 日本語の系統と歷史, 1978, pp. 153-194)를 참조.

(2) 白鳥庫吉, 日本の古語と朝鮮語との比較 (白鳥庫吉全集 第二卷 1970, pp. 149-251).

했다. 이것은 英文으로도 發表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이 硏究에 의해서 兩言語가 親近關係에 있다고 보아도 되리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3]. 그런데 興味 있는 것은, 1915年에 이르러 白鳥庫吉은 大略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처음에는 日本語가 한국語와 대단히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서 兩言語를 比較해보았는데 硏究가 차차 發展함에 따라서 兩言語의 關係가 멀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또 兩言語에 유사한 낱말이 매우 적다는 점을 들어 兩言語의 親近性에 대해서 否定的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그의 上揭論文(1897年)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한 200餘개의 낱말도 실은 그 內容에 있어서는 滿足하지 못했던 것 같다[4]. 그는 東洋史學者이었지만 言語에 대한 銳利한 洞察力의 所有者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論著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그를 한·日 兩言語의 親近性에 관해서 否定的인 方向으로 몰고 간 것은 바로 유사한 낱말이 매우 적다는 理由에서이었다. 그러면 70年이 지난 오늘날은 어떠한가? 1957年「日本語の起源」에서[5] 200餘개의 한·日 兩言語의 語彙를 比較한 바 있는 大野 晋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6]. 즉 兩言語의 語彙를 比較한 結果 痛感한 것은, 名詞는 유사한 것을 그런대로 發見할 수 있는데, 動詞·形容詞의 基本的 낱말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알타이語系統의 最大의 難點은 日本語와 對應하는 낱말을 많이 提示할 수 없다는 것이다. 明治時代 以來 알타이語와 日本語가 同系일 것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왜 對應語를 提示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답하는 것이 알타이語學者가 짊어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겠다」고 알타이諸語와의 語彙比較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유사한 낱말 그것만으로 言語의 親近性이 決定되는 것은 勿論 아니다. 그러나 基礎語彙로서 對應하는 것이 적으면 대단히 不利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音韻法則을 設定할 수 있을 정도의 對應例가 發見되지 않으면 매우 悲觀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現狀態로서는 한·日 兩言語의 語彙比較에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結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

(3) 金澤庄三郎, 日韓兩國語同系論 (池田·大野編 論集 日本文化の起源 (5), 日本人種論·言語學 pp. 377-402).

(4) 白鳥庫吉, 言語上より觀たる朝鮮人種 (白鳥庫吉全集 第三卷 1970, pp. 371-378).

(5) 大野 晋, 日本語の起源, 東京, 1957.

(6) 大野 晋, 日本語の系統論の新しい展開(現代のエスプリ別册 日本語の系統 1980, p. 5).

1.2. 위에서 보듯이 兩言語의 比較研究는 짧지 않은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또 注目할만한 研究業績이 없는 것도 아니나, 그렇다고 비약적인 큰 發展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듯 兩言語의 系統研究가 踏步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理由인가? 或者는 말하기를 兩言語가 대단히 오랜 時期에 分裂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漠然한 생각으로 根本問題가 解決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1.3. 本稿에서 筆者는 古代한국語의 形成에 관한 하나의 假說을 提示하려고 한다. 이것은 한·日 兩言語의 系統關係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重要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兩言語의 比較研究를 困難하게 하고 있는 큰 要因의 하나는, 단적으로 말해서 古代한국語의 形成過程을 너무도 單純하게 생각하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古代한국語의 形成過程은 從來 漠然히 생각해온 것처럼 그렇게 單純한 것이 아님을 먼저 强調해둔다. 여기 또한 日本語 자체의 복잡한 形成過程을 考慮할 때, 兩言語의 比較研究의 어려움을 足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1.4. 다음에는 한국語의 變遷段階를 간단히 살펴볼 必要가 있다. 新羅에 의해서 三國이 統一되고 統一新羅가 7世紀부터 10世紀까지 約3世紀동안 계속되는데, 이때 慶州를 中心으로 한 新羅語가 百濟와 高句麗에 점차 영향을 미쳐서 어느 程度의 言語的 同化가 이루어졌으리라고 推定된다. 그뒤 10世紀에 高麗가 開城을, 그 다음에는 14世紀末에 李朝가 서울을 中心으로 建國되었다. 따라서 10世紀 以來 政治的·文化的 中心이 慶州에서 韓半島 中部의 開城과 서울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開城과 서울이 言語的 中心이 되고 오늘의 한국語는 高麗王朝의 開城과 李朝의 서울을 中心으로 形成된 言語에 소급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變遷過程에서 우리는 新羅의 言語, 더 正確히 말하면 慶州를 中心으로 한 言語를 古代한국語라고 부른다. 그런데 從來 이 古代한국語인 新羅語를 單純히 그리고 漠然하게 알타이語系의 한 分派로 보았을 뿐, 古代한국語의 形成 문제에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1.5. 本論에 들어가기에 앞서 結論의 一部를 미리 말해둘 必要가 있다. 古代韓半島에는 어떤 不明의 言語가 있었으며 筆者는 이 不明言語를 잠정적으로 「原始韓半島語」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原始韓半島語는 古地名에 反映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從來 日本語와 유사한 낱말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注目되어온 이른바 高句麗 地名에서 推定되는 言語 또는 百濟와 新羅의 地名에 이 不明言語가 많이 反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原始韓半島語가 基層이 되고 그 위에 알타이語系의 言語, 특히 퉁구스語系의 言語가 얹혀서 古代한국語가 形成된 것으로 推定된다. 이 문제를 考察하기 위해서는 먼저 古代韓半島의 言語狀態와 從來 高句麗語라고 불리어온 言語와 百濟語·新羅語와의 關係에 대한 檢討가 必須的으로 要求된다.

二. 古代 韓半島의 言語

2.1. 古代韓半島의 言語狀態의 一面을 記述한 最初의 記事는 3世紀後半에 記錄된 中國의 古史書「三國志 魏書 東夷傳」에서 볼 수 있다. 그 記事는 斷片的이고 극히 皮相的이며 간단하지만 우리의 推定은 여기서 出發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그 高句麗條에 言語에 관한 言及이 있다.

東夷舊語 以爲夫余別種 言語諸事 多與夫余同

夫余는, 魏書 東夷傳에 의하면, 大體로 지금 北滿의 農安·長春 地方을 中心으로 한 나라이었으며 그 西쪽에서는 鮮卑와 接하고 東쪽에서는 挹婁(漢代의 肅愼)와 接하며 北에는 弱水(지금의 松花江?)가 있다. 그리고 그 南쪽에서는 高句麗와 接하여 있는데, 이 高句麗는 鴨綠江과 豆滿江의 上·中流를 中心으로 北으로는 南滿洲 一帶와 南으로는 韓半島 最北部의 一部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7]. 이렇게 볼 때, 夫余와 高句麗는 퉁구스語圈에 들어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두 나라의 言語가 대체로 같다고 한 記述을 理解할 수 있다. 또한 濊·沃沮·挹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記事가 있다.

言語法俗 大低與高句麗同 (濊條)

其言語與句麗大同 時時小異 (東沃沮條)

挹婁在夫余東北千余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未知其北所極 其土地多山險 其人形似夫余 言語不與夫余句麗同 (挹婁條)

濊와 沃沮는 韓半島의 東北部에서 東海에 면해서 길다랗게 形成된 나라인

(7)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p. 282 地圖 참조. 井上秀雄 譯註, 東アジア民族史 1, 東京 1977, 卷頭의 地圖 참조.

데, 이 地域의 言語가 高句麗의 言語와 대체로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濊나 沃沮의 土着民의 言語가 高句麗의 言語와 果然 같았는가 하는데는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8]. 그리고 沃沮의 北方에 沿海州를 包含한 地域에 挹婁가 있는데, 이 言語는 高句麗의 言語와는 다르다고 分明히 記述하고 있다. 이 挹婁에 관해서는 從來 異說이 있는데, 筆者는 挹婁가 古아시아族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는 現在의 길리야크族의 分布와 가까우므로 길리야크族의 先祖가 아닐가 생각하고 있다. 白鳥庫吉은 挹婁를 「오늘날의 퉁구스의 先祖로 보아야 할 民族」으로 보고 있다[9]. 이러한 見解는 그뒤 여러 學者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리고 魏書 東夷傳에서 이 挹婁의 言語가 高句麗의 言語와 다르다고 한 것을 考慮한 듯, 挹婁의 言語는 퉁구스語이고 「蒙古族과 퉁구스族이 混合한 雜種」인 夫余·高句麗族의 言語와 다르다고 보았던 것 같다. 筆者는 이렇게 보아야 할 뚜렷한 根據가 없다고 생각한다. 最近의 硏究에 의하면, 퉁구스族의 起源地를 바이칼湖 附近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퉁구스族이 東쪽으로 移動하면서 이른바 古아시아族이 滿洲의 東部와 北部로 밀려간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10]. 여기서 길리야크語의 權威者로 알려진 Krejnovič의 말에 귀를 기울일 必要가 있다. 古아시아族의 하나이며 現在 아무르江 下流와 사하린 一部에 살고 있는 길리야크人은, 그 民族的 起源과 古代史的 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그 言語를 보면, 이 言語가 알타이語 특히 퉁구스語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 自體가 어떤 단계에서 영향을 준 것이 確實하다고 前提한다음, 「길리야크人과 韓國人의 人類學的 관계에 관련해서 지적된 言語的 一致는 언젠가 길리야크族들이 〔지금보다 더〕 南方에 살고 있었으며 또 일면 韓國人들과 밀접히 접촉하고 다른 면에서는 古代 滿洲人들과도 접촉했다는 근거를 가정한다.……原因을 알 수 없는 영향아래 길리

(8) 三上次男, 古代東北アジア史硏究——東北アジア史硏究 第二——東京, 1977, p. 412/3. 「濊의 耆老가 스스로를 高句麗와 同種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言語法俗이 高句麗와 유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二世紀의 中期이후 濊의 諸首領과 高句麗와의 사이에, 특별히 강한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 「魏의 時代의 耆老의 말이나 言語·法俗에 관한 記載는 濊人一般에 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9) 白鳥庫吉, 上揭書, p. 376.

(10) M.G. Levin, Ethnic Origins of the Peoples of Northeastern Asia (Arctic Institute of North America, Anthropology of the North: Translation from Russian Sources, No. 3,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33. 이 册의 一部譯(原書 pp. 162-191)이, 金元龍譯, 퉁구스의 人種的 起源問題 (白山學報 第 2 號, 1967, pp. 115-154)이다.

야크人들은 언젠가 北으로 移動하여 아무르江 下流와 北部 사하린을 開拓하게 되었다」고 한다[11].

2.2. 以上은 魏書 東夷傳을 통해서 본 3世紀 後半의 韓半島 北部의 言語狀態의 一面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注意할 것은 當時의 樂浪郡과 帶方郡을 包含한 韓半島 北半部의 言語에 관해서는 전혀 言及이 없는 점이다. 3世紀 後半, 이 地域에도 어떤 土着民이 살고 있었던 것이 確實한데, 그들이 어떤 種族이었고 또 어떤 言語를 사용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史學界에서도 一定한 說이 없는 것 같다. 白鳥庫吉은 確實한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 地域의 原住民도 韓族이었으리라고 推定하고 있다[12]. 筆者는 一理 있는 推論으로 생각한다.

2.3. 다음에는 魏書 東夷傳에 있는 韓半島 南部의 言語에 관한 記事를 보기로 한다.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弁辰條)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自言 古之亡人避秦役 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有城柵 其言語不與馬韓同 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皆爲徒 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 (辰韓條)

弁辰條에서 弁辰과 辰韓의 言語가 「相似」하다고 함은 그대로 받아 들여도 別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辰韓條에서, 「其言語不與馬韓同」이라는 句節은 그 解釋에 注意를 要한다. 이 句節만을 前後 관계를 보지 않고 읽으면, 果然 辰韓과 馬韓의 言語가 다르다는 뜻으로 解釋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從來 거의 모두가 그러한 뜻으로 解釋하고 있다. 그러나 이 句節의 前後를 잘 살펴보면, 이 句節은 韓의 나라에 流入한 中國人 集團에 관한 記述인 것을 分明히 알 수 있다. 따라서 「其言語」는 辰韓의 言語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秦人의 言語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辰韓條의 위 句節은 辰韓과 馬韓의 言語差를 記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13]. 以上은 魏書 東夷傳에서 韓半島 南部의 言語狀態를 記述한 部分이다.

(11) E.A. Krejnovič, Gilijaskogo-tunguso-man'čžurskie jazykovye paralleli, 1955, p. 135/6.

(12) 白鳥庫吉, 上揭書, p. 376.

(13) 이러한 解釋을 最初로 지적한 것은, 河野六郎, 古事記に於ける漢字の使用 (河野六郎著作集 3, 東京, 1979, p. 25).

2.4. 지금까지 魏書 東夷傳을 考察한 結果 注目되는 것은, 첫째 北部의 言語와 南部의 言語의 관계에 관해서는 一言半句의 言及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兩者의 관계에 대한 言及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은 兩言語가 系統的으로 크게 다른 것을 反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傾向이 있으나, 이런 見解가 아무런 根據 없는 또한 不合理한 것임은 다음에 밝혀질 것이다. 둘째로는 南部의 言語에 관한 記述이 극히 貧弱하다는 사실이다. 셋째로는 濊·沃沮를 除外한 北部의 넓은 地域의 言語에 관한 言及이 없는 것은 이미 위에서 言及한 바 있다. 이렇게 魏書 東夷傳의 韓半島의 言語에 관한 記事는 그 內容이 실질적으로 매우 貧弱한 것이기에 여기서 全面的인 言語狀態를 推定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魏書 東夷傳에 관한 根本的인 문제를 考察할 必要가 있다.

2.5. 東夷傳의 編纂者인 陳壽가 高句麗나 沃沮의 경우와는 달리 南部 韓諸國에 관한 知識은 극히 稀薄했고 不正確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그 理由를 陳壽가 쓴 東夷傳의 「序」에서 確實하게 찾아 볼 수 있다. 魏의 明帝 때, 高句麗는 가끔 遼東을 侵犯했다. 그래서 244年 幽州刺史 毋丘儉이 出征해서 攻擊하니 高句麗王 位宮(東川王)은 도주했다. 그뒤 位宮이 王都 丸都에 돌아온 것을 안 毋丘儉이 다음 해인 245年 다시 高句麗를 치고 도주하는 位宮을 玄菟太守인 王頎으로 하여금 쫓게 했다. 位宮은 이번에는 東沃沮로 도망쳤다. 毋丘儉이 그를 쫓으니 位宮은 다시 北沃沮로 도주한다. 그리하여 王頎은 位宮을 쫓아 沃沮를 거쳐 挹婁(肅愼)의 땅을 突破하여 東쪽으로 大海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같이 二回의 出兵에 의해서 魏軍이 통과한 韓半島 東北部 一部와 그 以北의 地域에 관해서 그 言語·風俗·慣習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記述할 수 있는 資料를 實際로 얻게 된 셈이다. 그 結果 「序」에서 말하기를, 「드디어 諸國을 두루 살피고 이 地方의 法과 風俗, 나라의 大小 또 그 相異함을 들어……그것을 자세히 記述하게 되었다」고 했다. 言語에 관해서도 高句麗·沃沮·濊의 言語가 같고 挹婁의 言語는 다르다고 記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出兵에 의해서 얻은 知識을 背景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반하여 南方의 韓諸國은 中國과의 交涉이 稀薄했다. 특히 辰韓과 弁韓 등은 中國王朝와의 交涉이 가장 늦은 地域이었다. 그때문에 東夷傳의 韓諸國의 言語에 관한 記事도 弁辰과 辰韓 以外에는 없는 것을 理解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陳壽는 東夷傳을 評해서, 「東夷의 여러 나라에

서 通譯을 동반한 使者가 때때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 使者의 말에 따라서 東夷傳을 記述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東夷諸國의 一般的 사실을 傳하는 것이라 하겠는가!」라 하여 그 記述內容의 不正確性 혹은 貧弱性을 스스로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諸國과 高句麗의 유사성에 言及할 수 없었고 또 韓諸國의 言語에 관한 記事가 극히 貧弱한 것을 理解하게 될 것이다.

2.6. 百濟는 겨우 4世紀 後半부터 東北아시아의 政治舞臺에 등장하게 되며, 그 地理的 位置로 해서 中國王朝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7世紀의 梁書(列傳 諸夷) 百濟條에 다음과 같은 記事가 있다.

今言語服章略與高麗同

이것은 百濟와 高句麗의 言語에 관한, 그리고 이들 言語가 서로 유사함을 最初로 지적한 注目할만한 記事라 하겠다. 또 同書의 新羅條에서는, 中國人이 新羅人과 말을 하기 위해서는 百濟人을 가운데 通譯으로 두어야 한다고 했다.

語言待百濟 而後通焉

이 記事는 적어도 百濟人이 新羅의 言語를 理解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梁書에 의하면, 高句麗·新羅·百濟의 諸言語가 系統을 달리해서 相互理解가 전혀 不可能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만 크고 작은 地域的인 言語差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高句麗와 百濟의 言語差에 비해서 高句麗와 新羅의 言語간에는 보다 큰 差가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2.7. 周書(異域傳) 百濟條에 다음과 같은 興味 있는 記事가 있다.

王姓夫余氏 號於羅瑕 民呼爲鞬吉支 夏言竝王也.

이것은 從來 高句麗語와 百濟語의 相異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자주 引用되는 句節이다. 이 경우 특히 注意할 것은, 一般的으로 高句麗語라 할 때, 高句麗가 南下하기 以前의 韓半島 北部의 言語도 漠然히 包含되고 있는 점이다. 위의 句節은 一見하여 支配族의 高句麗語와 被支配族의 土着語인 百濟語와의 言語差를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이 一例에 의해서 韓半島 北方語와 百濟의 言語가 根本的으로 系統을 달리하는 言語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速斷일 것이다. 官職名이 地名보다 流動的

인 것임은 再論의 必要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官職名을 다룰 때는 각별한 注意를 요한다. 위의 경우에도 「於羅瑕」는 南下하기 以前의 高句麗의 名稱이었을 可能性이 높다. 다시 말하면, 韓半島 北方部의 土着語가 아닐 可能性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高句麗의 種族은 그들이 南下하여 占有하게 된 韓半島 北部의 支配階級이었고 官職名도 그들의 言語로 形成되었을 可能性이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於羅瑕」와 「鞬吉支」의 差는, 南下하기 前의 高句麗의 言語와 百濟의 土着語의 言語差를 反映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高句麗가 南下하기 以前의 韓半島 北方의 土着語와 百濟의 土着語와의 言語差를 反映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支配階級의 用語와 一般民衆의 用語가 큰 差異가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周知의 사실이지만, 百濟는 高句麗보다 늦게 한 國家로서 體制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王에 대한 名稱도 兩國에서 時間的으로 간격을 두고 또한 서로 다르게 形成되었을 可能性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위의 兩名稱이 古代韓半島의 南·北의 言語差를 反映하는 것으로 斷定할 수는 없다[14].

南·北의 言語가 系統的으로 다르다고 보는 또 하나의 큰 理由는, 古地名에 보이는 差異에 起因하는데 여기 관해서는 다음 章에서 考察하기로 한다.

三. 古地名을 통해서 본 言語差

3.1. 周知의 사실이지만, 「三國史記」의 「地理志」에 있는 高句麗·百濟·新羅 三國의 古地名은, 漢字音으로 表記된 土着語의 地名을, 新羅의 景德王 때(742~764), 그 意味에 對應하는 漢字로 대치하여 改名한 것이다(訓讀해야할 것이 包含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들 三國은 그 言語資料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地名은 일찍부터 비상한 注目의 對象이 되어 온 貴重한 古代三國의 言語資料라 하겠다[15].

(14) 日本書記에 나타나는 王(コキシ)는 鞬吉支(コンキシ)의 「ン」이 表記되지 않은 形態로 생각되는데, 大野 晋 共編, 岩波 古語辭典(東京, 1975)에 「コキン」는 수록되어 있어도 「オラカ」(=於羅瑕)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百濟의 土着語인 「コキシ」만을 借用語로 보는 것인가? 그렇다면 무언가 暗示的이고 興味를 끈다.

(15) 一例로 白鳥庫吉은 「朝鮮古代地名考」(白鳥庫吉全集 第三卷 pp. 37-68) 및 其他 論著에서 古地名을 다루고 그중 日本語와 유사한 것을 지적한 것이 發見

3.2. 高句麗 地名에 「馬忽郡→堅城郡, 買忽郡→水城郡, 乃勿忽→鉛城, 甲忽→穴城」 등과 같이 여러 土着語의 地名에 보이는 「忽」에 대해서 漢字의 「城」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城」을 의미하는 土着語, 여기서는 이른바 高句麗語의 낱말이 「忽」이었다고 推定하는 것이다. 여기 대해서 百濟의 地名에는 「毛良夫里縣→高敞縣, 半奈夫里縣→潘南縣, 古眇夫里縣→古阜郡, 古良夫里縣→青正縣」 등과 같이 「夫里」가 붙은 原地名(土着語에 의한 地名)이 많이 있다. 한편 新羅에는 「達句火縣→大丘縣, 舌火縣→花園縣, 雉省火縣→解顔縣, 退火郡→義昌郡」 등과 같이 「火」가 붙은 여러 原地名이 나타나고 있다. 「夫里」는 puri, 「火」는 訓讀해서 pïl로 읽는다. 「火」은 「伐・弗」로도 表記됨으로 訓讀하여 pïl로 읽어 옳을 것이다. 그리하여 (高)hol : (百)puri : (新) pïl을 둘러 싸고 相反되는 見解가 나타나게 된다.

(A) 위에 든 세 語形이 同一語에서 由來한 것으로 보고, 「夫里」・「火」에는 「城」을 대응시키고 있지 않음에도, 高句麗 地名에 있는 「忽」에 類推되어 모두 「城」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忽」을 「夫里」・「火」과 同一語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魏書 東夷傳의 高句麗條에 「溝漊者句麗名城也」라 했기에, 「城」을 의미하는 高句麗語가 「溝漊」(kulu)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溝漊」는 「忽」(hol<*kol<*kulu~*kolo)과 一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B) 일면, 위에 든 세 語形을 同一語로 보지 않고 그 差異는 北方과 南方의 言語差를 反映하는 것으로 漠然히 생각하는 傾向도 있다.

된다. 그러나 古地名, 특히 高句麗地名이 言語資料로 注視되는 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高句麗地名에서 數詞로 보이는 「密・干次・難隱・德」이 日本語 數詞 「ミ・イ・ナナ・トヲ」와 유사한 것을 지적한 新村 出의 「國語及び朝鮮語の數詞に就いて」(藝文 第七卷 二・四號 1916)라고 하겠다. 이 論文은 言語學 以外의 分野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喜田貞吉는, 1921年 「日鮮兩民族同源論」에서 新村出의 上揭論文을 引用하면서, 「その語系〔日本語의〕そのものに至っては, とうていこれが類似を朝鮮・滿洲・蒙古方面に求めなければならぬものである. そしてこの日本語が本來, 天孫民族の言語であるとしたならば, その天孫民族が, 朝鮮・滿洲・蒙古方面のある民族と特殊の緣故を有することを認めねばならぬではないか」라고 말하고 있다. 喜田貞吉說은, 江上波夫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그의 騎馬民族說의 原型이라고 하겠다(洞 富雄編, 論集 パレオ騎馬民族說, 東京, 1976, p. 414/5. 喜田貞吉의 上揭論文도 이 論集에 수록되어 있다. pp. 691-133). 그 뒤의 高句麗 地名과 日本語와의 比較硏究도 騎馬民族說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村山七郎, 日本語および高句麗語の數詞 —— 日本語系統問題に寄せて —— 國語學 48, 1962, p. 2, 10/1). 高句麗 地名의 가장 정밀한 硏究는, 李基文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白山學報 第四號, 1968) 참조.

3.3. 魏書 東夷傳이나 地名에서도 推定되지만, 高句麗에는 일찍부터 城이 있었고 城을 中心으로 住民이 모여 部落을 이루고 여기서 한 行政區劃으로 發達한 것으로 생각된다(水谷城-縣, 母城-縣 등 참조). 그리하여 城에 대한 名稱도 일찍부터 나타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忽」은 滿洲語 golo(省)와 比較된다. 한편 「後漢書」 韓條에 의하면, 馬韓에는 城郭이 없었다고 하는데 注目된다. 또 魏書 東夷傳의 韓條에서 들고 있는 馬韓의 小國名중에 「內卑離國·辟卑離國·如來卑離國」등이 있어서 이 「卑離」는 「夫里」와 一致하는 것으로서, 「夫里」(혹은 「卑離」)라는 말은 매우 오랜 歷史를 가진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夫里(卑離)가 「城」에 대한 名稱이었을 可能性은 없다. 夫里(卑離)는 「벌(野)」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平原·平野의 뜻에서 村落의 뜻의 地名으로 사용되었을 可能性이 높다. 즉 北方에서는 高句麗(南下하기 前의)때부터 城이 發達했고 城을 中心으로 住民이 모여 部落을 이루고 南方에서는 平原과 같이 평탄한 곳에 住民이 集團的으로 모여 이것이 村落을 이루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忽」은 高句麗가 南下하여 占有하게 된 모든 領土內에서 一般化된 것으로 推定된다. 이렇게 해서 地名의 命名方式의 하나가 北方의 高句麗의 경우와 南方 韓諸國의 경우가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3.4. 「夫里·火」과 Ko. pəl(<*pele)는 同一語로서 滿洲-퉁구스語의 다음 낱말과 一致한다. Urcha, Oroki, Negidal등 方言에서는 pala(n), 滿洲語에서는 fala(n) 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滿洲語 fala(n)에는 「廣場·平地·區域」등의 뜻이 있고 또한 여기서 「村里」의 뜻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16].

여기서도 「平地」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가 「村里」의 뜻을 가지게 된 것을 推定할 수 있다. 그리고 日本의 壹岐에서 北九州沿岸 地域을 中心으로 거의 全國에 걸쳐 fure·furu가 붙은 地名이 보이는데[17] 이것은 바로 「夫里」(卑離)·「火」과 一致하는 것으로서 注目된다. 「夫里·火」 등이 Ko. pəl과 관계가 있는 것과 같이 日本의 地名에 보이는 fure·furu도 Jap. hara(原)「廣い平らたなところ」[18]와 同一起源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Ramstedt는 Ko. pəl

(16) V.I. Cincius, Sravnitel'nyj slovar' tungso-man'čžurskix jazykov, Tom. 1, 1975, p. 32. 羽田 亨編, 滿和辭典, p. 124.

(17) 鏡味完二, 日本の地名, 東京, 1964, p. 51/2. 鏡味完二, 地名學選書, 東京, 1965, p. 57.

(18) 上代語辭典編修委員會編, 時代別 國語大辭典 上代編, 東京, 1967, p. 597.

을 滿洲語 fila와 比較한적이 있는데 이 比較는 옳지 않다. Ma. fila는 퉁구스諸方言의 pilan · pilin · pilia 등과 一致하는데 이들은 모두 「접시」의 뜻밖에 없음으로 意味上 比較될 수 없는 것이 分明하다[19].

3.5. 다음 章에서 다시 論議될 것이지만, 古地名에서 推定되는 言語에는 두 言語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忽」은 새로운 層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魏志 東夷傳 當時의 高句麗에서 出現하여 점차 南方으로 擴大되고 高句麗의 南下와 더불어 高句麗가 占有하게 된 韓半島 北部의 全地域과 中部一部에 一般化된 것으로 생각된다. 周知의 사실이지만, 百濟地名 「悅己→悅城, 結己→潔城」등에서 「城」을 百濟語로 「己」(ki)라고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ki는 高句麗 地名에 보이는 hol과 同一語로 생각된다. 그 變化過程은 다음과 같이 推定된다 : ki<*kui<*kuju<*kulu. 이 百濟語 ki가 古代日本語의 「城」을 의미하는 kï와 一致하는 것은 이미 오래 前부터 注目되어온 사실이다. 그런데 古代日本語 kï에서 注目해야 할 것은 母音 ï가 乙類인 것이다. 이 乙類인 ï는 *ui에서 變化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20], kï는 *kui에서 變化한 것으로 推定되어야 할 것이다. 百濟語 ki의 變化過程에서 *kui는 바로 古代日本語 kï의 前段階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6. 三國史記 地理志의 古地名을 言語資料로 利用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注意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三國의 地名이 모두 言語資料로서는 不完全하고 또한 量的으로도 貧弱하지만, 高句麗의 地名, 즉 韓半島 中部의 地名이 質과 量的으로 그중에서도 나은 편이고 新羅의 地名이 다음 가며 百濟의 地名은 가장 貧弱하다. 地理志의 地名中에는 「今達 一云薪達 一云息達」과 같이 어떤 地名에 대한 舊別名을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別名이 言語資料로서 價値가 있는 것은 再論의 必要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高句麗 地名에서 別名을 3개 수록하고 있는 것이 2곳, 2개 수록하고 있는 것이 11곳, 1개 수록한 곳이 84개이며 別名이 없는 것이 67개에 이른다. 여기 대해서 百濟의 地名에는 別名을 3개 가진 것이 1곳, 2개 가진 것이 4곳, 1개 가진 것이 24개이며 別名이 없는 것이 118개에 이른다. 이와 같이 高句麗 地名에는 그 59%까지가 하나 이상의 別名을 보여주고 있는데, 百濟 地名에서는 겨우

(19) 日本書記(卷3 神武天皇, 卷7 景行天皇)에서 「村」을 fure로 읽고 있는 것이 注目되는데, 이것도 물론 地名에 보이는 furu · fure와 同一語일 것이며 또 이들이 이 hara(原)와 관계가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 있다.

(20) 大野 晋, 日本語の起源, 東京, 1957, p. 163.

20%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統一新羅의 地名을 整理할 때 百濟 관계의 資料가 매우 貧弱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21]. 이 한 사실에 의해서도 三國의 地名이 각각 質·量的으로 不均衡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앞으로 古代韓半島의 言語狀態를 考察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留意할 必要가 있다. 둘째로 强調되어야 할 것은, 貧弱한 言語資料이긴 하나, 三國의 地名이 綜合的으로 考察되어야 하는 점이다. 從來에는 日本語와 유사한 낱말이 있다는 점에서 三國의 地名중 高句麗의 地名, 즉 中部의 地名에 注意를 集中시킨 傾向이 없지 않다.

3.7. 다음에는 三國의 地名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言語差가 나타나는가를 보기로 한다. 例를 들면 中部의 地名(從來 高句麗 地名이라고 불리어온)에서 抽出되는, 「密·干次·難隱·德·內米·烏斯含·忽次(古次·串)」등은 日本語 mi, itu, nana, töwo, nami, usagi, kuti와 유사한 것으로 問題가 된 낱말의 一部인데, 이들과 意味가 같거나 혹은 유사한 낱말이 新羅나 百濟의 地名에는 없다. 이렇게 意味와 形態가 유사한 낱말이 三國의 地名에 각각 나타난다면, 그 言語差를 容易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例는 거의 없다. 이것은 資料의 不均衡과 貧弱性에, 특히 百濟 地名의 貧弱性에 起因하는 것이다. 위에 든 낱말의 경우에도 新羅와 百濟에서 同系의 낱말이 사용되었는지 혹은 다른 낱말이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三國의 地名에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낱말은 없으나, 二國에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少數의 낱말이 있어서 注目된다.

	意味	高句麗	新羅	百濟
(1)	川	買(mai)·米(mi)	買(mai)	
(2)	水	勿(mïl)	勿(mïl)	
(3)	熊	功木(kumuk)		熊(koma)
(4)	提	吐(tu)	吐(tu)	
(5)	三	密(mil)	推(mil)·麻(ma)	
(6)	城	忽(hol)		己(ki)
(7)	黑(陰)	今勿(kïmïl)	今勿(kïmïl)	
(8)	赤	沙伏(sapuk)		所比(sopi)
(9)	泉	於乙(əl)	乙(ïl)	仍利(-阿)(iŋri)
(10)	黃	骨(kol～kul)		仇(ku)
(11)	鐵(金)	蘇(soi)	素(soi)	

(21)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京, 1974, p. 86.

다음에 몇가지 例를 보기로 한다(위에든 語形은 모두 再構形이다).

(1) 高句麗 地名에서 「川」의 의미를 가진 낱말 「買」를 정확하게 抽出할 수 있다. 한편 新羅 地名에서도 現 忠北의 北部 한 곳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高句麗의 南界와 가까운 곳이므로 北方에서 「買」가 침투했을 可能性이 높다. 新羅와 百濟에서는 이와 다른 「那」(na)가 「川」의 意味로 나타난다(素那 或云金川, 沈那 或云煌川). 그런데 鄕歌에서 「川理」로 表記한 것을 보면, 末音節에 -ri가 있은 것을 보게 된다. 이 nari가 日本書紀에서 「那利(nari)·那禮(nare)」 등으로 表記되고 있는 것과 一致하는 것은 이미 周知의 사실이다. 한편 百濟地名에서도 「加知奈縣(如乙乃)→市津縣」에서 「津」에 대한 「奈·乃(nai)」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新羅의 「那」와 一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편 中部의 「買」는 길리야크語 my「江源」와 유사한 것에 注目된다. 따라서 中部以北에는 길리야크語가 침투하여 一般化된 것이 아닌가 推定된다.

(2) 新羅地名에서는 「泗水縣 本史勿縣」에서 「勿」이 나타난다. 이것은 아마 韓半島 全域 혹은 적어도 中部以南 全地域에서 사용된 듯 하다.

(3) 「功木」은 百濟地名에서 볼 수 있는 「熊(津)」 (고마ㄴㄹ, 龍歌 16 注釋)와 一致하며 이것 역시 全地域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4) 「提」를 의미하는 낱말을 百濟地名에서는 찾을 수 없으나, 百濟에서도 同一語가 사용되었을 可能性이 높다.

(5) 「三」을 의미하는 낱말은 高句麗 地名에서만이 아니라, 新羅地名에서도 發見되는 것을 특히 注意해야 한다. 百濟地名에서는 「3」의 數詞로 생각되는 낱말을 抽出할 수 없으나, 여기서도 같은 數詞가 사용되었을 可能性이 높다.

(6) 高句麗의 「忽」과 百濟의 「己」가 同一語임은 이미 言及한 바 있다. 新羅地名에서는 여기 대응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中世韓國語 「잣」(城)은 新羅語 起源인가? 「잣」은 「忽」·「己」와는 별도로 形城된 것 같다. 이미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城이 먼저 發達한 것은 高句麗이었다.

(7) 百濟地名에는 보이지 않으나, 同一語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新羅地名에서는 「赤」을 의미하는 낱말을 發見할 수 없다[22].

---

(22) 이런 경우, 中世韓國語의 「붉-」은 後世에 形成된 낱말인 것 같다. 「붉-」은 原來 「火」을 의미하는 「불」에 活用語를 形成하는 文法形態素인 「ㄱ」이 附加되어 形成되었을 可能性이 있다(拙稿 「한국어 어원 연구를 위하

(9) 高句麗 地名에서 「泉」을 의미하는 「於乙」이 길리야크語 eri(河)와 一致하는 것은 이미 考證된 바 있다[23]. 이 「於乙」이 日本書記(皇極天皇 元年二月條)에서 「泉(淵)蓋蘇文」의 姓인 「泉」을 表記한 「伊梨河須彌」의 「伊梨」(iri)와 一致하는 것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三國史記에서 新羅始祖의 誕生地인 「蘿井」이 「奈乙」로도 表記되고 있는 것을 보면, 新羅에서도 高句麗에서와 같은 낱말이 사용되었음이 確實하다. 또한 百濟 地名 「仍利阿縣→海濱」에서 「仍利」가 보이는데 이것도 「於乙」·「乙」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10) 「黃」을 의미하는 「骨」과 「仇」에 관해서는 五章에서 자세히 說明될 것이다.

(11) 「蘇」와 「素」는 中世韓國語 「쇠」와 同一語임이 확실한데, 이들은 原來 「金」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金屬物에 대한 總稱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5.1 참조). 「蘇」는 「蓋蘇文(蓋金)」에서, 「素」는 「素那→金川」(新羅)에서 抽出된 것이다. 여기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新羅地名에서는 「黃」을 의미하는 낱말을 發見할 수 없다. 中世韓國語에 nuri- 「黃」가 보이는데 그 形成過程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註22와 같은 경우를 참조).

以上 몇 例에서 보듯이 三國 혹은 中部와 南部에 系統을 달리하는 根本的인 言語差가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끝으로 注目할 것은, 위의 例에서도 두 言語層에 속하는 것이 反映되어 있는데, (2)·(6)은 새 層에 속하는 것이며 下層에는 其他 낱말과 특히 길리야語와 同一語로 보이는 (1)·(9)가 包含되어 있다.

四. 原始韓半島語

4.1. 이미 위에서도 수차 强調한 바 있지만 魏書 東夷傳 當時 韓半島 北半部에도 어떤 種族이 살고 있었으며 또 어떤 言語가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미 地名이 形成되고 있었을 것이다(그 以前부터 그리고 그뒤에도 계속 地名이 形成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魏書 東夷傳 當時의 高句麗와 韓半島 北半部의 種族과 그들의 言語에 관해서 이들을 比較하여 그 同異를 判斷할 수 있는 아무런 具體的인 資料가 없다. 그럼에도 從來 高句麗가 南下하여

여」, 延世大 韓國語學堂 「말」에 發表 豫定).

(23) 拙稿, 알타이諸語와 한국語 (東亞文化 15, 1978, p.13).

韓半島의 北部를 占有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兩地域의 言語를 同一視하는 경향이 있다. 韓國上古史에서도 韓半島 北部의 原住民에 대해서 異說이 있고 一定한 說이 없는듯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록 극히 貧弱한 資料이긴 하지만 古地名에 立脚해서 言語狀態를 推定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 地理志의 古地名이 唯一한 資料라 하겠는데, 그것도 主로 韓半島의 中部에 制限되어 있어서 韓半島 北部에 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三國史記 地理志에서 高句麗地名이 보여주는 韓半島 中部와 南下하기 以前의 高句麗의 言語關係가 먼저 문제의 焦點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南下하기 以前의 高句麗의 言語는 制限된 中國古史籍에서 斷片的인 그것도 不完全한 表記에 의한 몇개 안되는 낱말을 抽出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러한 貧弱한 資料에 의해서 그 言語를 推理한다는 것은 出發點부터 커다란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危險性을 무릅쓰고라도 일단은 推理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4.2. 南下하기 전의 高句麗語를 몇몇 中國古史書에서 發見할 수 있다.

(1) 家家自有小倉 名之爲桴京 (魏書)

(2) 字曰夫蒙 其俗言朱蒙者善射也 (魏書)

(3) 今胡猶名城幘溝漊者 溝漊者句麗名城也 (魏書)

(4) 其冠曰骨蘚多以紫羅爲之 雜以金銀爲飾也 (周書), 貴者其冠曰蘚骨 多用紫羅爲之 (北史)

(5) 句麗呼相似爲位 (魏書)

(6) 有蓋蘚文 或號蓋金 姓泉氏 (唐書)

(7) 凡有五族 有涓奴部·絕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 按今高麗五部, 一曰內部, 一名黃部, 即桂婁部也, 二曰北部, 一名後部, 即絕奴部也, 三曰東部, 一名左部, 即順奴部也, 四曰南部, 一名前部, 即灌奴部也, 五曰西部, 一名右部, 即涓奴部也. (後漢書)

몇 가지 高句麗語의 例를 들었는데 이중 (3)·(6)에 관해서는 이미 言及한 바 있으나, 其他의 것은 오늘날 그 낱말의 語源을 알길이 없다[24].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7)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暗示를 준다. 後漢書 東夷傳에 보이는 高句麗의 五部族의 名稱은, 貧弱하기 이를데 없는 高句麗語 資料중에서도 각별히 重要한 價値가 있다. 이들 名稱에 대해서는 이미 白鳥庫吉의 先驅的인 硏究가 있으나[25], 그뒤 보다 믿음직스

(24) 이들 낱말에 대한 解釋이 部分的으로 試圖된 바 있다. 白鳥庫吉, 「漢史に見えた朝鮮語」(白鳥庫吉全集 第3卷, pp. 155-187).

(25) 白鳥庫吉, 「丸都城及國內城考」(白鳥庫吉 第3卷, pp. 349-351).

런 硏究를 發表한 것은 村山七郞이다[26]. 다음에 村山七郞에 따라서 이들 낱말에 대한 說明을 보자. 먼저 原文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東=左 順・奴 ʒiuĕn nuo=ǯewun nā
(2) 西=右 消・奴 sien~kiuen nuo
(3) 南=前 灌・奴 kuan nuo
(4) 北=後 絕・奴 ǯuel nuo=ʒuel nā
(5) 內=黃 桂・婁 kueilu

(1)—(4)에 보이는 「奴」는 nā를 表示하며 南퉁구스語 nā(土地・地方)와 同一語임이 확실하다. 그런데 Benzing은 北퉁구스語群과 南퉁구스語群을 分明하게 區別하는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한 바 있는데, 語彙의 差異例로서 「太陽」과 「土地」의 낱말을 들었다. 「土地」를 의미하는 낱말이 南퉁구스語群에서는 na 혹은 nā, 北퉁구스語群에서는 dunnə, tūr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위의 高句麗語 「奴」는 南퉁구스語와 一致하며 地理的으로 보아도 當然하다 (이 nā, na는 韓半島 中部에도 流入하여 여러 地名에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古地名에 있는 두 言語層에서 새로운 層에 속하는 것이다).

(1) 「順」(左・東)는 퉁구스諸語의 Ma, ǯun(左), Nan, ǯəuŋgiə(左), Ev. ǯūn (東), ǯeγin (ǯevin) (左)등과 同一語임을 의심할 수 없다.

(4) 「絕」(北・後)는, Ev. ǯulə(前・東), Sol. ǯuldədu(前), Lam. ǯul(前), Ma. ǯulergi 「前方・南方」과 同一語로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北」=「後」 絕 ǯuel이 아니라, 「南」=「前」 絕 zuəl이었던 것이 어떤 誤記로 「南」과 「北」이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3) 「南」=「前」 灌・奴, (3)과 (4)는 意味가 서로 뒤바뀌어서 原來는 「北」=「後」 灌・奴이었으리라고 推定된다.

(2) 白鳥庫吉(全集 第三卷, p. 350)은, 三國史記에 보이는 桓那部가 消奴部(後漢書에 「消」로 있음은 誤記로 본다)와 同一名으로 桓那・消奴는 「右」를 의미하는 퉁구스語에 對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Grube에 의하면[27], 퉁구스方言에 xángid(右)가 보인다. 그러나 南퉁구스方言에는 一般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xan(右)이 南퉁구스語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면, 桓

(26) 村山七郞・國分直一, 原始日本語と民族文化, (東京, 1979, pp. 146-153).
(27) W. Grube, Goldisch-Deutsches Wörterverzeichniss, St. Petersburg, 1900, p. 4.

那部, 涓奴部의 桓, 涓이 南퉁구스語의 xan(右)과 對應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不確實性이 남아 있다」라고 村山七郎은 말한다.

(5) 「桂婁」의 語源은 不明

그리하여 高句麗의 五部族 名稱에서 이 言語의 方向語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 東=左 順 žewun<*žegün
(2) 西=右 桓涓 huan, kiuen ? <*an
(3) 南=前 絕 ǯuel<* ǯule
(4) 北=後 灌 kuan ? <*xama

結論的으로, 「東」은 확실히, 「南」은 약간 확실하게, 「北」·「西」는 不確實하게 퉁구스語와 연결된다고 한다. 그리고 高句麗의 言語는 퉁구스語 그것은 아니었지만 그것과 起源的인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附言했다.

三國史記 地理志의 高句麗 地名중에는 約20여개의 鴨綠江 以北의 地名이 包含되어 있다. 그중에는 韓半島 中部 地名에도 나타나는 「忽」·「達」(山)·「押」(丘)등이 보인다. 「忽」에 관해서는 이미 言及한 바 있으며, 「達」과 「押」은 高句麗語가 韓半島 中部에 流入한 것, 다시 말하면 韓半島 中部의 地名에 보이는 「達」과 「押」은 새로운 言語層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3. 韓半島 中部의 地名(즉 三國史記의 高句麗 地名)에서 抽出되는 낱말은, 硏究者의 主觀的 判斷에 따라서 差異가 있으나, 80여개 정도가 抽出된다. 이들 낱말 중에서 滿洲-퉁구스語와 유사한 것은 10여개를 넘지 못한다. 특히 地名에서 抽出된 4개의 數詞(3·5·7·10)가 퉁구스諸語의 어느 方言의 數詞와도 유사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은 注目할만 하다. 다만 「七」을 의미하는 nanun (nannun)이 Tung. nadan과 유사성을 보일 뿐이다. 따라서 兩者는 偶然한 類似性일 可能性도 있다. 이 nanun이 나타나는 地點은 現在의 京畿道 楊州로서 이 地帶는 原來 百濟의 땅으로 뒤에 高句麗가 占有하게 된 곳이다. 따라서 nanun이 百濟의 地名이었을 可能性을 全的으로 排除할 수 없을 것 같다. 사실상 高句麗 地名이 나타나는 韓半島中部의 南쪽 部分은, 原來는 百濟나 新羅의 勢力圈에 들어 있어서 百濟語 新羅語 地名이 많이 包含되어 있을 可能性이 없지 않다. 筆者가 弼調하고자 하는 것은, 百濟의 舊領土內에 있는 모든 地名이 모두 百濟語라는 것이 아니라, 三國史記의 高句麗 地名이 나타

나는 韓半島中部의 南部地帶는 北方語와 南方語가 서로 접촉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金正浩는 그의 「大東地志」에서, 三國史記 卷35·37의 高句麗 占有地중 百濟의 失地에 해당하는 69地域을 하나하나 지적한 바 있는데[28], 바로 nanun이 나타나는 「難隱別→七重城」이 그 地域에 包含되어 있다. 이 金正浩의 記事가 歷史的으로 어느 程度의 正確性을 가진 것인지는 새로운 硏究課題가 되겠으나, 그가 提示한 69地域은 南·北의 言語가 서로 접촉하는 곳으로서 어느 것이 北方語의 地名이고 또 어느 것이 南方語의 地名인지를 區別할 수 없는 地域임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nanun이 百濟語일 可能性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이 퉁구스語와 유사한 낱말이 意外로 적고 또한 數詞가 一致하지 않는 사실은, 高句麗 地名(三國史記)에서 推定되는 言語를 漠然히 퉁구스語의 한 分派로 보아온 우리들의 期待에 몹시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그 地名에서 抽出된 낱말들은 퉁구스語와 比較될 수 없는 것들이 大部分이다. 筆者는 오래 前부터 이 사실에 注目해왔다. 이미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貧弱한 資料중에서도 高句麗의 五部族의 名稱에서 方向語가 어느 程度 正確하게 퉁구스語로 解釋되는 점으로 보아 南下하기 前의 高句麗의 言語는 퉁구스語의 한 分派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과 系統的인 관계가 있었음을 推定할 수 있다. 그러나 韓半島 中部의 地名에서는 一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言語的 系統의 立證資料로는 說得力이 약한 語彙도 包含되어 있다. 一例로 「城」·「文」·「犁」 등을 意味하는 것들은, 크게 一種의 文化語로서 比較的 後期에 속하는 地名일 것이다.

그리하여 筆者는 從來 高句麗語라고 불리어왔고 또 퉁구스語의 한 分派로 생각되어 왔던 韓半島 中部의 地名에서 推定되는 言語는, 실은 高句麗가 南下하기 前의 高句麗語(즉 퉁구스語와 系統을 같이하는)와는 거리가 먼 言語를 많이 反映하고 있다는 結論에 이르게 되었다. 아마 系統的으로도 다른 言語이었을 可能性도 없지 않다. 그리고 地名에는 이 不明의 두꺼운 言語層과 알타이語系의 얇은 言語層이 反映되고 있는 것으로 推定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地名에서 推定되는 言語는 充分히 알타이語化되지 않은 狀態를, 즉 不明의 言語層이 많이 反映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4.4. 3章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原始韓半島語는 韓半島의 中部 뿐만 아니

(28) 都守熙, 百濟語硏究, 大田, 1977, p. 37.

라, 南部에도 分布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地域에 따라서 적지 않은 言語差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미 强調한 바와 같이 系統을 달리하는 言語差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4.5. 그런데 이 韓半島中部地名에서 抽出되는 30여개의 낱말이 日本語와 유사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여기서도 硏究者의 主觀的 判斷에 의해서 一致하는 것으로 보이는 낱말의 수에 差異가 있다. 31개로 가장 많이 본 學者는 村山七郎이다[29]).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推定을 可能하게 한다.

즉 韓半島에서 두 言語의 물결, 原始韓半島語와 알타이語系의 言語의 물결이 繼起的으로 日本에 流入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不明의 言語는 일찍 消滅했으나, 한국語와 日本語의 形成過程에서 적지 않게 吸收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이 韓·日 兩言語의 比較를 困難하게 하는 큰 要因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4.6. 筆者는 한국語와 古地名에 길리야크語의 要素가 存在하는 사실을 發表한 바 있다[30]. 그러나 原始韓半島語가 길리야크語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結論을 내릴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 한국語에 보이는 길리야크語의 要素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정밀한 硏究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筆者와 별도로, Krejnovič에 의해서 한국語와 길리야크語의 유사한 낱말이, 또 그와 P. Schmidt에 의해서 유사한 數詞 두개가 지적된 것은 注目을 끈다(MK. nəi '4': Gily. n-, ny-, nu- 'id.'; MK. ta (-sʌs) '5': Gily t'o- 'id.').

五. 百濟語의 두 낱말

5.1. 原始韓半島語가 韓半島 거의 全域에 分布되어 있었으리라는 것은 위에서 考察한 바 있다. 따라서 百濟地名에서 原始韓半島語로 보이는 要素를 日本語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 두 가지 例를 百濟 地名 및 其他 資料에서 보기로 한다. 이러한 例는 많이 있으나 本稿에서는 특수한 例를 보기로 한다.

金池縣 本百濟仇知縣
金溝縣 本百濟仇知只山縣

(29) 村山七郎, 高句麗語資料および若干の日本語·高句麗語音韻對應, 言語硏究 第42號, p.70.
(30) 拙稿, 上揭書 참조.

이것은 三國史記 地理志(卷36, 地理 3)에 있는 百濟의 地名이다.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金」에 대한 百濟語의 名稱이다. 「金池」와 「金溝」에 대해서 同一한 「仇(知)」가 두번 나타나고 있어서 이 「仇(知)」가 「金」과 관계가 있는 것이 틀림 없다. 다만 「仇知→金池」에서 「金—仇」, 「池—知」와 같이 대역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金」에 대한 百濟語가 「仇知」 아닌 「仇」일 可能性도 있다. 아뭏든 「仇知」를 취하든 「仇」를 취하든 「仇」가 「金」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여러 印歐諸語에서 보면, 「金」과 「銀」을 表示하는 낱말들은 비록 相異한 派生要素가 붙어 있으나, 同一한 語根에서 由來한 것을 알 수 있다 : O.In. híranya-, Ar. zaranya-, O.Per. daraniya-, Goth. gulþ, O.H.G. gold, O.C.S. zlato. 여기서 共通語基 *ĝhel-이 再構되는데, 그 原意味는 「黃」이다. 또한 「銀」을 意味하는 印歐諸語의 낱말은 다음과 같다 : O.In. rajatá-, Av. ərəzata-, O.Per ardāta-, Lat. argentum, Arm. arcat, Toch. ārkyant, Grk. arguros. 여기서 共通語基 *arĝ-가 再構되는데, 그 起源的인 意味는 「白」이다. 이렇게 「金·銀」등의 金屬物에 대한 名稱이 그 金屬物의 색갈을 表示하는 色彩語에서 派生되는 現象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語根 *ĝhel-이 「黃」, *arĝ-가 「白」을 意味하는 것과 같이 「金」은 「노란(쇠)」, 「銀」은 「흰쇠」라고 불리어졌던 것이다[31]. 또 古아시아語의 하나인 길리야크語에서도 「銅」을 의미하는 낱말이 pangla인데, 이것은 「赤」을 의미하는 panglad에서 派生한 것이다[32]. (길리야크語에서는 「金·銀」의 名稱은 滿洲語에서 借用하고 「銅」 등 몇 가지 金屬物의 名稱은 자기들의 固有한 言語로 命名한다). 이러한 現象은 우리의 鷄林類事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金」은 「那論義」라 하고 「銀」은 「漢歲」라고 했는데 「那論義」의 「義」는 「歲」의 誤字일 것이다. 「那論」은 「누른(黃)」, 「漢」은 「흰(白)」임을 곧 알 수 있다(黃曰那論, 白曰漢, 鐵曰歲 참조). 古代日本語에서도 「金」을 ku(黃)+gane(쇠), 「銀」을 siro(白)+gane(쇠), 「鐵」을 kuro(黑)+gane(쇠)라 하여 色彩語로 表示했다. 上代日本語나 古代한국語에는 「金·銀」에 대한 固有한 名稱이 없었고 특히 한국語에서는 「쇠」가 「金」뿐만 아니라 모든 金屬物의 總稱으로 사용된듯 하다. 따라서 「金」을 「쇠」로 表記한 것을 地名이나 其他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金」과 「銀」의 名稱도

(31) H. Krahe, Sprache und Vorzeit, Heiderberg, 1954, p. 33.
(32) E.A. Krejnovič, op. cit., p. 52.

後世에 漢字를 빌려 使用하게된 것이다.

이러한 現象을 볼 때, 百濟 地名에 나타나는 「金」에 대응하는 「仇」(ku)는 「黃」을 의미했던 色彩語로 생각되는데 이것과 比較되는 것이 古代日本語의 ku(-gane)라 하겠다. ku-gane는, siro(白)-gane(쇠)와 같이, ku+gane로 分析되며 이 ku-는 「黃」을 의미하는 色彩語임이 틀림 없다[33]. 百濟地名의 「仇」는 古代日本語의 ku와 一致하는 것으로 그 意味는 모두 「黃」을 의미했으며 이것이 「金」의 名稱으로 使用되었던 것이 틀림 없다. 百濟語는 거의 資料를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ku:「黃」을 直接 確認할 수는 없으나, 古代日本語 ku-gane의 ku는 그 形態·意味 면에서 「仇」(ku)와 一致하는 것으로 보아 옳을 것이다. 한편, 高句麗 地名 「黃驍縣 本骨乃斤縣」에서 「黃」에 대응하는 「骨」(kol~kul)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百濟語 「仇」와 一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仇」와 「骨」에서 *kul이 再構된다. 新羅 地名에서는 「黃」을 의미하는 낱말을 發見할 수 없다. 中世한국語 「누르-」가 어떻게 形成되었는지는 알길이 없다. 中世한국語나 現代한국語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 起源的으로 新羅語이었다고 만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위에서 본 바 있다(註22).

古代日本에서는 金이 七寶의 하나로 貴重히 여겨졌으나 全的으로 輸入에 依存했으며 續日本紀에 의하면, 天平勝寶 元年(749)에 처음으로 陸奧國 小田郡에서 金이 發見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金」의 名稱도 金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借用했을 可能性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일면, ku+gane의 語形成을 보면, 이 名稱이 形成되었을 때는, ku가 「黃」을 의미하는 독립된 하나이 낱말로 의식되어 사용되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ku를 단순한 借用語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ku가 또한 「黃」을 의미하는 ki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2. MK. sjəm과 OJ. sima(島)의 현저한 유사성은 일찍부터 여러 學者에 의해서 注目되어 왔다. 한국語와 日本語의 유사한 낱말을 들 때, 이 낱말이 빠지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나 兩者의 관계를 最初로 說明한 것은 Ramstedt라 하겠다. 그는 한국語 sjəm이 *sima에서 變化했다고 보며 *sima의 첫 音節母音 -i-가 다음 音節에 있는 -a-에 同化되어, 즉 「i의 꺾임」이 일어났다고 說明했다(따라서 OJ. sima가 MK. sjəm보다 古形이며 兩言語의 共通語基

(33) 上代語辭典編修委員會編, 上揭書, p. 253.

로서 *sima가 再構된다). 이러한 說明은 不充分하지만 正確한 관찰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는 이 낱말은 日本語가 한국語에서 借用한 것도 아니고 또 한국語가 日本語에서 借用한 것도 아닌 共通起源이라고 했다.[34] 그런데 最近 Miller와 村山七郎는 Romstedt의 見解를 支持하면서 이 낱말에 대한 상세한 硏究를 發表했다[35]. 그들의 공적은 日本書紀에 나타나는 sima에 대한 또 하나의 sema라는 語形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한국語에서, *sima>*syama>*syäma>*syŏma>MK. syŏm>NK. sŏm과 같은 變化가 있었으리라고 본다(이 表記에서 -y- -ä- -ŏ-는 각각 筆者의 表記 -j- -e- -ə-에 해당한다). Miller는 日本書紀에 보이는 古代日本語 sema는 더 오랜 *sĕma에 소급하는 것인데, 이 *sĕma는 古代한국語 *syäma에 立脚해서 推定된 것이라고 했다[36]. 여기서 *sĕma의 -ĕ-는 -*i+a-에서 變化한 것으로 본다. 古代日本語에서 乙類의 e는 *ai, 甲類의 e는 *ia에서 變化한 것으로 보는 大野 晋 등의 見解와 같은 것으로서[37], 日本書記에 나타나는 sema의 -e-를 乙類에 속하는 -ĕ-(<-*i+a-)로 본 것은 한국語에서의 한 變化過程인 -*j+e-를 考慮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日本書紀의 sema의 -e-는 좀 다른 각도에서 注目되어야 한다. 筆者는 이미 다른 論文에서 밝힌 바와 같이[38] 한국語에서 (1)-*ja->(2)-*je->(3) MK. -jə-와 같은 특이한 變化過程이 確認되는데, 日本書紀의 sema의 -e-는 筆者가 가정한 2단계의 -*je-를 立證하는 것으로서 注目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日本書紀의 sema는 日本語를 表記한 것이 아니라, 百濟語이며 이 -e-는 筆者가 위에서 가정한 2단계의 -*je-와 一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다음에 日本書紀에서 sema가 나타나는 句節을 살펴보기로 한다.

(A) 六月丙戌朔 孕婦果如加須利君言 於筑紫名羅嶋(sima)產兒, 仍名此兒曰「嶋(sema)君」於是 軍即以一船 送嶋君於國, 是爲武寧王, 百濟人呼此嶋(sima)曰「主嶋(sema)」也.(日本書紀 卷14, 雄略天皇 5年條).

(B) 百濟新撰云 末多王無道 暴虐而姓, 國人共除 武寧王立, 諱斯麻王, 是琨支王子之子, 則末多王異母兄也, 琨支向倭, 時至筑紫嶋(sima) 生斯麻王, 自嶋(sima)還

(34) G.J. Ramstedt, Two Words of Korean-Japanese, JSFOu 55, p. 27/8.
(35) R.A. Miller, Some Old Paekche Fragments, Journal of Korean Studies, 1, 1979, pp. 17-31. 村山七郎, 日本語の硏究方法, 東京, 1974, pp. 241-247.
(36) R.A. Miller, op. cit., p. 26.
(37) 大野 晋, 上揭書, p. 163.
(38) 拙稿, 上揭書, pp. 44-46.

送 不至於京產於嶋, 故因名焉, 今各羅海中有「主嶋(sema)」. 今案 嶋王是蓋鹵王之子也. 末多王 是琨支王之子也. 此曰異母兄 未詳也. (日本書紀 卷16, 武烈天皇 4年條)

이 두 句節에서 보면, 먼저 (A)에서 「嶋(君) sema(-kisi)」는 人名으로 그 아이가 百濟人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도 百濟語일 것이며 또한 다음에 나오는 「(主)嶋(nirimu-)sema」도 本文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百濟人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역시 百濟語임이 틀림 없다. (B)에서 「今各羅海中有主嶋 王所產嶋 故百濟人號爲主嶋」의 두 「(主)嶋(nirmu-)sema」는 同一한 것이며 또한 이것도 百濟人이 그렇게 부르는 名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百濟人이 百濟語로 부르는 名稱임이 틀림 없기에 이들 名稱은 모두 百濟語를 反映하는 것이라 하겠다. 위의 句節에서 百濟語의 名稱을 表記할 때는 sema를 사용하고 그밖에 日本語로 「島」를 의미하는 낱말을 적을 때는 sima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B)의 句節 앞에 「百濟末多王無道 暴虐 百姓, 國人遂除 而立嶋王, 是爲武寧王」이라 하고 「嶋(主)」를 sema(-kisi)로 읽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武寧王의 또 다른 百濟語 名稱을 表記한 것으로 보아 옳을 것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武寧王의 諱가 「斯摩」이다. 이 「斯摩」가 「日本書紀」의 sima, sema와 一致하는 것임은 再論의 必要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sema는 古代日本語라기보다는 百濟語를 反映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ja->-*je->MK. -jə-의 中間 단계인 -*je-를 反映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日本書紀의 百濟 등 三韓에 관한 記事에 나타나는 地名이나 人名이 韓族의 言語形態로 읽히는 傳承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할만 하다[39].

村山七郎와 Miller는 上揭論文에서 日本語 shima의 原意味가 반드시 오늘날과 같은 「四面이 물로 둘러 싸인 작은 陸地」라는 뜻이 아니라는 흥미 있는 見解를 發表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것을 상세히 紹介할 여유가 없으나, 그들은 古事記傳(卷44)에 있는 다음 句節을 참고하지 못한듯 하다. 「島とは, 凡てもと周廻に界限の有て, 一區なる城を云名て海中にはかぎらす」[40].

한국語와 日本語에는 서로 유사한 낱말이 적지 않게 發見된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른바 文化語에 속하는 것으로서 한국語에서 日本語에 借用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많이 包含되어 있다. 일면 어느 것은 借用 관계인지

(39) 河野六郎, 朝鮮語の系統と歷史(河野六郎著作集 2, p. 82).
(40) 白鳥庫吉, 日本の古語と朝鮮語の比較, 國學院雜誌 414, 1898, p. 16.

혹은 同系語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러한 것중의 하나가 바로 위에서 본 낱말이다. 여기 관해서 Miller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日本語 shima는 한국語에서 借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그 반대도 아니다[41]. 만일 借用 관계라 할지라도 그 借用이 두 言語간에서 대단히 오랜 시기에 일어났다면, 어떤 과학적 方法에 의해서도 그것이 借用 관계인지 혹은 어원을 같이 하는 것인지를 識別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낱말이나 形態素가 借用에 의해서 몇몇 言語 혹은 語族 전체에 擴大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이 알 수 없을 정도의 옛 시기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共通基語로 소급시킨다[42]. Kretschmer도 말한 바와 같이, 語源的인 共通語와 借用語라는 것이 年代的인 差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위에서 본 두 낱말은 原始韓半島語의 한 例라고 하겠다.

(41) R.A. Miller, op. cit., p. 29.
(42) P. Aalto, G.J. Ramstedt and Altaic Linguistics, CAJ 19-3.